

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

-민·관의 교육지원 실태 및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-

승용배 |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조정과장

I. 추진 배경 및 목적

- 우리 사회 다양한 구성원의 인권보호 및 사회통합 필요
-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교육소외 방지대책 마련
-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인적자원 개발방안 모색

II. 정책 대상

■ 국제결혼가정 자녀

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(이하 '결혼이민자') 사이에서 출생한 아동으로, 국적법제2조제1항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민이 됨으로 헌법 제31조에 의한 교육권을 보장받음

■ 외국인 근로자 자녀

불법체류자 자녀의 경우에도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('91 비준), UN 아동권리위원회 권고('03.1)에 따라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근로자의 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므로 정책 대상에 포함

■ 새터민 청소년

한국에서 출생한 새터민(북한이탈주민)의 자녀 또는 우리나라에 입국한 탈북 청소년으로, 한국 국민으로서의 교육권을 보장받음

III. 다문화가정 자녀 현황

1. 국제결혼 가정

■ 일반현황

'05년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건수는 4만3,122건으로, 전체 결혼신고 건수의 13.6%가 국제결혼임(통계청)

구분	총결혼건수	국제결혼	외국인 아내	외국인 남편
인원(명)	316,375	43,121	31,180	11,941
비율(%)	100	13.6	9.9	3.7

※ 국제결혼 비율 추이 : '90년 1.2% → '00년 3.7% → '04년 11.4% → '05년 13.6%

■ 교육현황

- 현재 초·중·고 재학 중인 국제결혼가정 자녀수는 총 7,998명임
 - 이 중 초등학교생이 85%로 대부분 차지(중 11.6%, 고 3.5%)
- 여성결혼이민자 자녀의 경우 유아기에 한국어가 미숙한 외국인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므로 언어 발달 지체
-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17.6%가 집단따돌림을 경험하였으며, 따돌림 이유는 '엄마가 외국인이어서'가 34.1%로 가장 높음(복지부, '05)

■ 민·관의 교육지원 현황

- 외국인 배우자(결혼이민자)의 한국어 교육 및 사회 적응 지원
 - 여성가족부는 '06년부터 전국에 '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' 21개소를 지정하여 한국어 교육, 자녀 상담 서비스 등을 종합 지원할 예정이다. 예산 및 사업 규모가 미미
- 자녀에 대한 한국어 교육 및 학습 지원
 - 최근 전북교육청이 '국제결혼 가정 도움계획(KOSIAN EDU PLAN)'을 수립·추진('06.2)하는 등 선도적인 움직임을 보임

집단따돌림을 당한 이유	비율(%)
엄마가 외국인이기 때문	34.1
외사소통이 잘 안되어서	20.7
특별한 이유 없이	15.9
과도와 행동이 달라서	13.4
외모가 달라서	4.9
기타	22.0

2. 외국인근로자 가정

■ 일반현황 및 교육현황

-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345,679명이며, 이 중 합법체류자가 164,887명(47.7%), 불법체류자는 180,792명(52.3%)임(법무부, '05.12)

- '06년에는 경기회복세에 따라 고용사정이 호전되어 일자리가 40만 여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(한국노동연구원), 향후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 근로자는 점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
- 등록 외국인(불법체류 포함) 중 취학 연령대인 7세 이상 18세 이하는 17,287명으로 추정
- 이중 외국인학교 재학생 7,800명을 제외하면 국내학교 유입 가능 인원은 약 9,500명으로 추정되나 국내학교 재학생은 1,574명('05.5)에 불과함

■ 민·관의 교육지원 현황

-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한국 적응 및 안정적 체류 지원
-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교육권 보장 지원
 - 교육부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만으로 초등학교 입학이 가능하도록 입학 절차 간소화(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)
-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한글교육, 종교교육, 정보화 교육 실시
 - 200여 개에 이르는 외국인근로자 지원단체에서 외국인 근로자 가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의료·법률 서비스 제공

3. 새터민 청소년

■ 일반현황

- '05년까지 우리나라에 입국한 새터민은 총 7,991명으로, '00년 이후 매년 1,000명 이상의 새터민이 한국에 정착
 - '04년의 경우 입국인원이 전년 대비 47.8% 늘어나는 등 규모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, 학령기 청소년(6~20세) 입국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

■ 교육현황

- 초·중·고 학령기 새터민 청소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, 현재 학령기(6~20세)에 해당하는 인원은 997명임
 - ※ 입국자수(6~20세) 증가 추세 : ('99) 22명 → ('01) 124명 → ('05) 226명
- 학령기 새터민 청소년 997명 중 69.8%(696명)만 취학
 - 일반학교 재학자는 194개교에 432명으로 43.3%에 불과('05.9.)
- 탈북 이후 제3국 체류 장기화(3~5년)로 학업 결손이 존재하며, 남북한 교육내용 및 학습방식의 차이로 학교 적응이 어려움

■ 민·관의 교육지원 현황

- 새터민 청소년에 대한 적응 교육(교육부, 통일부)
 - 하나원 내 "하나들학교"(비인가)에서 3개월간 적응교육 실시 후 학력심사를 거쳐 일반 학교 편입
 - 하나원 인근 "삼죽초등학교(교육부 지정 북한이탈학생 적응 연구학교)"에서도 특별학급 통해 3개월간 적응교육 실시

- 새터민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 학교 설립(교육부, 통일부, 민간)
 - 새터민 청소년의 남한 사회 적응을 위한 대안학교(한겨레 학교) 설립 추진('04~)

IV. 정책과제 및 대응방안

정책비전	문화 민주적 통합(Cultural Democratic Integration)으로, 한국을 문화적 용해의 장(Cultural Melting Pot)으로 전환
과제 1	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부처간 협력 체제 구축
과제 2	지역사회의 다문화가정 지원 협력체제 구축 지원
과제 3	'학교'의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 기능 강화
과제 4	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을 위한 교사 역량 강화
과제 5	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다문화 교육요소 반영
과제 6	'대학생 멘토링' 사업을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확대
과제 7	정책대상별 고유 과제